

《자유연제 II 11:50 ~ 12:40》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된 관절낭염의 관절경적 치료

Arthroscopic treatment in the rotator cuff tear with capsulitis

김진섭, 유정환, 정영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남 성심 병원

서론

유착성 관절낭염은 뚜렷한 원인없이 심한 통증과 전 방향의 능동, 수동적 운동장애를 보이는 질환으로 Zuckerman과 Cuomo, Harryman 등은 정의하였고 견관절경적 관찰시 특징적인 관절낭염 변화를 보인다. 잘 계획된 보존적 치료에 불구하고 1년 이상 증세가 지속되는 환자에서는 관절경적 견관절낭 유리술이 권유될 수 있으며 이때 회전근개 손상 등의 병변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술전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어 견관절경적 관찰시 관절낭염이 동반되어 있었던 경우도 경험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는 드물다. 이에 본 교실에서 경험한 관절낭염의 관절경적 치료 47예중 관절내 병변이 동반된 25예를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관절낭염과 동반된 관절내 병변으로는 회전근개 부분파열 16예, 회전근개 완전 파열 8예, 이두근 부분파열 1예, SLAP 2예이었고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로 술전 진단하였으나 관절낭염을 확인한 경우가 6예였고 이외는 저항성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하에 관절경적 치료하였다. 수술 방법으로 전례에서 관절낭염 변연절제술과 전 후방관절낭 유리술후 견봉하성형술을 시행하였고 회전근개 완전파열에서는 봉합술이 추가되었다. 회전근개 관절내 부분파열 10예에서는 관절내 스테로이드 주입하였고, 전례에서 술후 지속적 정맥 주사로 통증 관리하였다. 술후 2, 6주, 3, 6개월과 최종 추시시 통증과 운동범위(전방거상, 내, 외회전 및 cross-body adduction gain) 기능적 활동도를 참조한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 등의 결과를 평가하였다.

결과 및 결론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56세(44-74세)였고 50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녀 각각 14, 11명 좌,우측 8, 17예였으며 평균 추시기간은 13개월(8-25개월)이었다. 당뇨 병력은 1명이었다. 관절경적 관찰에서 전, 후 및 하방관절낭, 이두근 주위의 심한 활액막염이 보이는 Neviaser분류의 stage II 24예였고 stage I 1예를 보였다.

회전근개, 이두근 부분파열 17예에서 심한 통증 소실은 평균 2주(1주-3개월)이었고 최종 추시에서 평균 운동 범위는 전방거상 150도, 외회전 35도, 내회전 제 11 흉추, cross-body adduction gain은 45도로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에서 양호 이상을 보였다. 회전근개 완전 파열로 회전근개 봉합술이 함께 시행된 8예에서는 최종추시시 평균 운동 범위는 전방거상 140도, 외회전 20도, 내회전 제 1요추, cross-body adduction gain은 30도이었으나 통증이 평균 12주(2주-6개월)까지 지속되었고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는 우수 2예, 양호 4예, 불량 2예였다. 유착성 관절낭염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많고 통증, 견관절 운동범위 등 실제 객관적 측정값에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견관절내 다른 병변과 동반되어있는 관절낭염에서는 술후 통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